

# 해남 산이~ 영암 삼호 간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

### 총연장 12.19km 4차로 신설 도로...준공까지 7년 소요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접근성 향상 및 교통 편의 증대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9일 전면 개통했다.

솔라시도대교 영암유지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서동욱 도의장과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교차로(IC)을 연결하는 총연장 12.19km, 4차로 신설 도로로, 총사업비 3,155억 원이 투입되어 2015년 12월 착공, 2022년 12월 8일 준공되기까지 7년이 소요되었다.

지난 2022년 2월 지방도 8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6월 '솔라시도'로 광역도로명이 부여되었다. 주요 시설물로는 영암호를 가로지르는 연장 2.2km의 더블리브라이지교인 솔라시도대교 등 교량 5개소, 평면 및 입차 교차로 5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및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무안군 남악, 영암군 삼호 도심을 거치지 않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도로 이용 시보다 4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이상 단축되어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7년 해남 화원-신안 압해 간 국도 77호선 연결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해남 마산-산이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등이 추진중으로, 교통망 확충이 눈에 띄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시는 지난 2020년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 159만여㎡(48만여평)면적, 98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계획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내 최대 산이정원 조성, 글로벌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등 정월도시, 태양에너지도시, 스마트도시의 도시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서남권 최고의 명품 휴양도시이자, 관광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



이러하며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성공은 해남뿐만 아니라 전남 서부권 전체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금당면에 노인 복지시설 '금당 행복의 집' 열어

### 지형 그룹, 4억 5천만 원 상당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해 기부



완도군은 지난 7일 어르신들의 보호 서비스를 전담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시설인 '금당 행복의 집' 준공식을 가졌다.

본 시설은 지난해 6월 완도군과 지형건설(사)지형공동체가 업무협약을 하고 추진했으며 12월 준공됐다.

또한 금당면 출신인 지형건설 이정배 회장이 (사)지형공동체와 함께 사회사업 일환으로 기부했으며, 이는 우리 군 최초로 기부채납을 받은 노인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당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 몸이 불편해도 집에서 재가 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고향 요양원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라며 기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4억 5천만 원 상당 건물을 기부해 주신 이정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회장님의 뜻을 담아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내 편지 받소"...장흥 유치면, 한글교실 문집 발간

장흥군 유치면 한글교실 수강생 12명이 그림과 편지 44편을 실은 문집을 발간했다.

어르신들이 꼭꼭 눌러쓴 문집에는 배움의 기쁨과 가족의 사랑,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방글방글 한글교실'을 운영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찾아 만학의 기쁨을 드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의 지원을 받아 5

월부터 대전1구 경로당과 동산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매주 2회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열정 만큼은 젊은이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달 초 열린 종강식에서는 12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무한열정상, 지극정성상, 행복충만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문수연 유치면장은 "내년에도 한글교실을 지속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치매예방 프로그램 '스마트 뇌총총' 호평

진도군이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스마트 뇌총총'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스마트 뇌총총 프로그램은 만75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D펜을 이용, 인지 예방활동과 뇌총총 인지감각워크북으로 뇌의 인지자극을 촉구해 심리, 신체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주2회 치매안심센터 인회분소에서 진행된 '스마트 뇌총총'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운영이 끝난 뒤에도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았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진과 스마트 뇌총총 같은 다양한 인지기



능향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치매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치매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진도군치매안심센터 540-6963-6971, 인회분소 540-6387,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 군민의 인문학 쉼터 '곳간 정약용캠프' 운영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액션그룹 날다협동조합이 강진을 동성리에 위치한 '인문학 곳간'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곳간 정약용캠프'를 열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당초 중년여성 선착순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큰 호응으로 20명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임정자 작가와 함께 하는 기억과 성찰의 인문학 캠프'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가수의 퐁기타 공연, 임정자 작가의 강연,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념관과 옐로우로드 도보 순례 등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